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7년도 표어 ⊗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엡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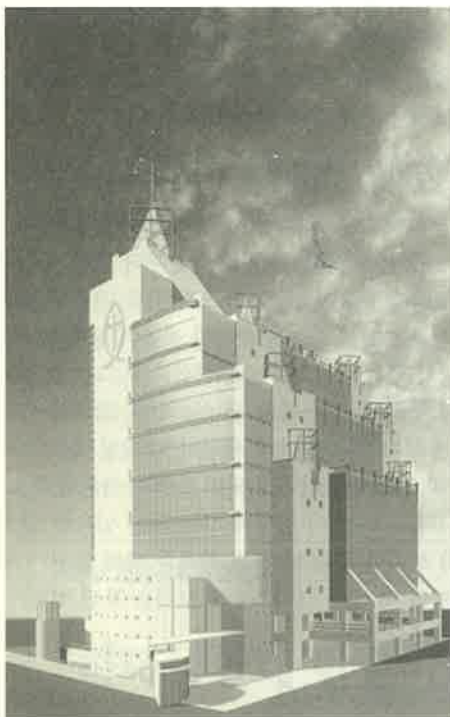
⊗ 생활지침 ⊗

1.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자
2.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자
3. 성령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새 예배당 건축 주민들 1년 반만에 반대 거둬

“무너진 여리고 성” 더이상 장벽 없기를 ...



강남구 대치동에 세워질 새 예배당 투시도. 그간 주민대표들의 요구를 수용하느라 처음 설계를 세 차례나 변경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새 예배당은 지상 8층 건물로 예배실은 지상 3개 층에 들어서며 지하는 주차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교회 새 예배당을 짓게 됐다.

우리 교회는 1995년 9월에 강남구 대치동에 새 예배당을 지을 부지를 하나님께 허락 받았다. 우리는 종교부지에 종교건물을 짓기 위해 법이 정한 모든 규정에 맞게 건축설계를 하고 당국에 신청을 했었다. 그러나 강남구청에 접수된 민원을 이유로 행정당국이 우리 교회 건축의 허가를 지체하여 대지를 구입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건축을 시작하지 못했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와야 건축을 허락할 수 있다는 행정당국의 요구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다.

그런데 '97 홍해작전을 마친 6월 25일에 우리는 기적을 목도했다. 우리 교회 건축위원들이 당국자들의 주선으로 건축심의라는 명목하에 주민들을 만나 보고 어느 새 여리고 성이 무너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우리 앞을 가로막으며 반대하여 그토록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힘들게 만들던 주민대표들이 그 날은 건축위원들에게 “목사님께 가서서 감사하라는 말을 전해달라”며 양처럼 온순한 태도로 오히려 감사를 표하더라는 것이다. 교회로 돌아와 이 사실을 보고하던 건축위원들의

눈가에는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맺혔다.

건축허가는 8월 초 얻게 될 전망이다. 그간 교회는 주민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기로 결정하여 1995년도 했던 처음 설계를 세 차례나 변경했기 때문이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본래 지하층에 두려던 예배실을 지상 3개 층에 배치하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할 계획이며 지상 8층 건물로 지을 예정이다.

이제까지 우리 교회는 예배당을 신축하기 위해 오래동안 기도해왔다. 많은 성도들은 벌써부터 21세기 도시교회로서 아름답고 품위 있는 서울교회당이 강남 한복판에 세워질 것을 생각하며 환희와 감격에 차 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사회에 주신 큰 선물인 줄 알고 경건한 마음과 사명감을 가지고 더 이상 방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많은 기도와 물질로 헌신해야 할 것이다.

이종윤 목사는 건축허가를 앞두고 온 성도가 더욱 겸손히 기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하면서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하나님의 전은 물질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술로가 아니라 기도로, 말로가 아니라 벽찬 헌신과 희생으로 지어져야 한다”고 계속 강조한다.

농촌전도단 기도제목 제시

전도위원회(위원장 김태기 장로)는 다음 주 농촌전도단 파송에 앞서 온 교우들의 기도의 응원을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제목을 제시했다.

1. 전북 익산시 오산면 신지리 주민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전도활동이 되게 하옵소서.
2. 동네 전체에 가득찬 우상의 세력이 복음전파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3. 지역교회들이 화평을 이루어 마을에 덕을 세우게 하옵소서.
4. 약해져 지쳐있는 신석교회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생동감 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5. 전도대원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하게 하옵소서.

6. 농촌 전도단원들의 활동이 마쳐진 이후에 오직 하나님의 존귀하심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7. 복음전파 사업에 온 교회가 기도로 후원하게 하옵소서.

여름성경학교 한창

지난 주 17일(목)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마친데 이어 이번 주에는 유년부와 초등부가 21일(월) ~ 22(화) 교회당과 야외에서, 사랑부는 24일(목) 교회당에서 각각 여름성경학교를 개최한다.

파키스탄 선교여행단 28일 파송

선교위원회(위원장 노문환 장로)는 7월 28일(월)부터 8월 5일(화)까지 파키스탄 복음화를 위한 선교단을 파송한다.

이 선교단은 파키스탄복음화를 위해 애쓰는 현지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제 6차 김치(KIMCHI)신학세미나에 참가했던 파키스탄의 김치 동문들의 활동을 활성화하며 선한

사마리아병원 현장을 방문, 격려하게 된다.

이번 선교여행단의 구성원은 이종윤 목사를 비롯하여 오정수·노문환·홍정호·이영기 장로 등이며 선교여행의 주 목적은 우리 교회가 지난 해 중앙아시아로 파송한 박종상 선교사의 활동을 격려하는 데 있다.

강해설교 여호수아서

1장 1-11절

“여호와와 중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중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에게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중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삼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이종윤 목사

여호수아의 준비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대행진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었다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어 당신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한 사건 직후 아멜렉군대가 이스라엘에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여호수아 이름은 하나님의 군대장관으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그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입성케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 사회에, 우리 교회에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민족의 지도자로 준비된 일꾼이었습니다.

1.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옛 사람이 죽어야 하고 거듭나지 못했던 과거의 사람은 십자가 밑에 장사지내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모두 옛 사람을 장사지내야 합니다. 다시 살아날 수 없도록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 여호수아는 가나안 7족을 멸했습니다

가나안 7족이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을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가나안 7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개인, 가정, 교회, 민족을 괴롭히는 가나안 7족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불신앙(不信仰)이요 불의(不義)요 불충(不忠)입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듯 안으로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하고, 밖으로는 우리를 해하려 하는 가나안 7족과 같은 사단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3.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이요, 두번째는 모세와 함께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일하는 자는 강하게 되고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진정으로 산자며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치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고후6:9-10). 믿음이 없어 우왕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의 권능을 믿어 좌

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어야 하겠습니다.

4.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향로는 잔잔한 강처럼 평탄할 때도 있지만 때로 풍랑이 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것(talk about it)과 ② 주야로 묵상할 것(think about it) 그리고 ③ 어떤 환경에서도 지켜 행할 것(do it)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선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요동치 않습니다. 태산보다 더 큰 믿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둘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5.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토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먹이던 만나는 가나안의 소산을 먹는 순간부터 끝이 났습니다(수5:12). 따라서 여호수아는 요단 강을 건너기 3일 전에 백성들을 향해 양식을 준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하면 요단 강을 건너는 일은 도리어 죽음으로 가는 길이 되고 맙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요단 강을 건너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일용할 양식도 구해야 하지만 죽음 너머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영생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여호수아에게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에게는 신앙과 생활의 규범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책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공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고 철저히 순종한 데 있었습니다.

둘째, 여호수아에게는 믿고 순종하는 생활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과 권능을 믿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도록 지시했습니다. 요단강은 바람이나 어떤 물리적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갈라졌습니다.

셋째, 여호수아는 초자연적 지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로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임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모든 권세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갖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권세(권능)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그 권능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테반회 수련회를 마치고

신학교 필수과목엔 족구가 있다?

마음은 간절했으나 좀처럼 기회를 얻지 못했던 스테반회의 야외모임을 모처럼의 기회를 얻어 갖게 되었다. 이 기회에 늘 설렘없이 일만하시는 이종운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님들을 함께 모셔 자연 속에서 하룻밤만이라도 기도하며 쉬게 해 드리자는 것이 스테반회 회원 모두의 바람이었다. 그러나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 날 없다고 장례와 성경학교 개최 등으로 부분적으로 참석치 못하는 분들도 있었다. 수년 동안 이런 쉼은 없었노라는 어느 사모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신 분들이었기에 극히도 짧은 하룻밤이 더욱 좋으셨던 것 같다.

우리는 정해진 모든 순서를 마치고 장소를 옮겨 그동안 버려던 목사님들과의 운동시합을 했다. 불같이 내리찍는 초복의 열기 속에 두 시간 여 동안 격렬했던 시합은 스테반회의 참패로 끝났다. 아마도 신학교 필수과목 중에 족구가 있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다. 운동시합이 있는 동안 바로 옆 장소에선 스테반회 회원의 부인들과 교역자 사모님들의 동심어린 찬송과 박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그 화목한 웃음소리는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것이었다.

어린 아이같은 심정이 되어 아름다운 교제시간을 보내면서 형제애가 더욱 깊어졌다. 우리는 감사와 아쉬움을 남긴 채 작별을 했다. “주

님, 저희의 작은 정성이 교회를 섬기는 큰 힘이 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하영수 집사(스테반회 간사)

주님의 머슴된 것 감사합니다.

스테반회는 여러 여건상 매월 교회 옥탑층에서 월례회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수요일부 예배를 마치고 각자 출발하여 부부가 함께 목적지에 이르렀다. 제주도, 전주 등지에서 출장 중이던 회원들도 속속 도착했다.



이종운 목사님의 강의는 자정을 넘어 새벽 1시에 이르렀으나 누구하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다.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주님의 충성된 머슴으로 구별되는 삶을 살라”고 하셨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스테반회의 전반기 활동 점검과 후반기 활동 계획을 진지하게 토의하면서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는 찬송가 40장의 한 구절을 떠올리기도 했다.

“우리는 주님의 머슴됨을 기뻐합니다. 주님

의 머슴들은 주 안에서 한 몸 되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 임훈규 집사(베들레헴찬양대 지휘)

호숫가에서 주님 물으셨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스테반회 회원들은 주님의 사랑을 늘 체험하면서도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무게가 때로는 너무 무거워 내려 놓고 싶은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 때마다 큰 힘이 되어주신 목사님들과 교우들의 힘으로 오늘의 스테반회가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첫 날 새벽 2시가 넘어서 잠자리에 들었으나 다시 새벽 5시 30분에 기상하여 연못가에서 가진 새벽기도회.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을 주시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고 지금 주님이 이곳에 계시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돌아보며 깊은 묵상의 기도가 이어졌다.

시종일관 화목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됨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쪼록 늘 수고 많으신 우리 목사님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이 모임의 보고서는 자랑스럽게 내 놓을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을 또 기억하면서 이번에 얻은 힘이 더 충성되게 일하는 데에 소용되기를 기원한다.

서문석 집사(차량관리위원)

유치부 여름성경학교에서

“하나님한테 반말하지 말아라!”

노애리(유치부 교사)

감감해요 이 세상은 죄악 때문에
죄악으로 감감한 이 세상에 등불이 필요해요
불을 밝혀라 주의 말씀으로 불을 밝혀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장마인가 싶으면 이내 무더위가 계속되고 장마가 끝난 후의 무더위인가 싶으면 비가 쏟아져 잠시 후의 일도 분간키 힘든 여름에 우리 유치부에서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를 주제로 여름성경학교를 열었다. 온 가족이 태극기를 걸어둔 채 밖으로 밖으로 나가는 이 더운 여름 달력의 빨간 날. 여름 휴가의 맛을 잠시나마 미리 느껴 보려는 많은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 더위를 식혔지만 100명에 가까운 유치부 어린이와 교사들은 교회 별관에 모여 뜨거운 햇볕을 밖에 혼자 내버려 두고 여름성경학교를 열었다.

매 주일 만나는 아이들인데도 이번엔 왜 그리 긴장이 됐는지... 마치 무슨 발표회나 연주회를 앞둔 사람처럼 말이다. 매 주 I·II부로 나누어 가지던 유치부 집회와는 달리 여름성경학교 날엔 모두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너무 좋은 날이 기도 하고 어쩌면 합쳐져 갑자기 많아진 아이들

의 숫자에 교사들은 약간 당황스러운 날이기도 하다.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해도 성경학교가 열리는 날 아침은 바쁘기 마련. 작은 문을 우르르 몰려들어오는 아이들에게 여느 때처럼 명찰을 걸어주며 이번에는 ‘I Love Jesus’ 라는 글귀가 새겨진 예쁜 티셔츠를 입혔다. 가뜩이나 예쁜 아이들이 모두 흰색 옷을 입고 있으니 영락없이 맑은 천사의 모습이다.

예배가 시작되었다. 촛불예배. 밤하늘이 그림진 했지만 아이들은 15분 간의 예배시간 동안 가장 귀한 것을 지닌 양 자기를 손에 쥐어진 촛불을 간직했다. 예배가 끝나니 자기를 세상이다. 예배시간 동안 다물었던 입이 열려 제각기 재잘댄다. 찬양으로 다시 그들의 입을 하나로 모으고 아민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한 선행과 그의 후손이 출애굽 시에 복을 받아 누리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음에 관한 것이었다.

4개의 센터를 돌며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갖는 ‘센터학습’ 시간. 이야기방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이야기를 연극으로 꾸몄고, 만들기방에선 아이들 손목에 말씀장자를 매달아 주며 말씀

을 항상 읽고 사랑해야 함을 가르쳐 주었다. 놀이방에서는 두 가지 규칙을 정해 풍선축구 경기를 하며 하나님의 계명도 경기 때의 규칙을 지키는 것처럼 잘 지켜야 함을 가르쳤고, 찬양방에서는 십계명을 내용으로 하는 찬송을 여러 악기와 온 몸으로 찬송하게 하였다. 십계명에 대한 내용과 인식을 확실히 하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된 센터학습에 아이들은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열심으로 집중했다.

십계명 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라”는 제 3계명이 어린이 찬송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돼 있다. 이날 처음 교회에 온 한 어린이에게 세번째 계명이 무엇이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너무도 결박이었다. “하나님한테 반말하지 말아라!” 얼마나 아름다운 어린이의 해석인가.

시간은 무척이나 짧았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돌아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작은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난 올보가 됐어요

주님 사랑 감격하는 올보

주님 만나고 난 새가 됐어요 주님 사랑 노래하는 새
주님과 함께 하는 하루하루 그 시간이 가장 기쁨이요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나요 그 순간이 천국이요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으로 울고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으로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서 복받는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된 성경학교였다.

목회단상

지침서 무시하면 A/S를 받는다?

이성득 목사

(3·4교구, 초동부, 찬양위원회 지도)

물건을 구입하면 사용 설명서와 주의 사항이 있다. 자세히 읽어야 하는데, 적당히 아는 지식으로 설명서를 무시한 채 사용하면 꼭 탈이 생긴다. 얼마 전 구입한 지 며칠되지 않은 라디오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길래 이리저리 뜯어보기도 하고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다가 결국은 A/S센터의 도움을 받게 됐다.

원인은 간단했다. 타이머의 스위치를 누르고 사용하는 바람에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성경말씀은 꼭 필요한 지침서이다. 지침서가 되는 그 귀한 말씀이 있는데도 대충 접어둔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다. 그들은 인생행로에 있어서 고장이 나거나 다소 어려움이 생겨야 비로소 '사용설명서'를 찾으려 한다. 외국어로 써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사람들은 보지 않는 것일까? 왜 모든 걸 쉽게 생각해 버릴까?

이번 여름성경학교 기간 동안 초동부에서는 이 지침서를 읽는 훈련을 할 계획이다. 긴 여행에 독도법(讀圖法)이 필요하듯 인생의 여행을 하는 동안 무엇을 배낭에 넣어야 하며 무엇을 빠뜨려서는 안되는지 가장 기초적인 것을 하나하나 가르치며 점검할 것이다.

매스미디어가 어린이들의 영혼을 황폐케 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교사들은 벌써 오래 전부터 기도도 준비해 왔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날을 기다리며 학부모 여러 분들의 관심을 기대한다. 삼각받침대의 중요한 한 부분은 이제 부모님들에게 달려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여름성경학교로 보내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 순례자 컬럼 ◆

빛 안에서 살자

인류 역사상 인간이 발견한 사건 중 가장 위대한 것이 있다면 불과 바퀴의 발견이라 하겠다. 이것들은 인간 사회에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을 이룰 만큼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불이나 바퀴가 인간들이 갖고 있는 것 중 자랑스런 것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것들이 진정한 의미와 가치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빛이 없는 세상은 혼란과 부자유와 죽음뿐, 아무 것도 생존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빛은 누가 발견하거나 발명한 것이 아니다. 그 빛이 이 세상에 찾아 오셨고 각 사람에게 비쳐짐으로 인하여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자녀로 바뀌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사건이다.

우리를 찾아 오신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보다는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한다.

오늘도 진리보다 더 분주하게 일하는 악에게 끌려가지 말고 빛 안에서 사는 자유인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

세계에 알려진 김치세미나

우리 교회 김치신학세미나가 세계로잔위 원회에서 발간하는 World Evangelization 최근호(97. 6. 제 79호) 세계교회뉴스 첫 머리에 크게 보도됐다. 보도의 내용은 이종운 목사의 근영과 함께 김치신학세미나의 주목적을 설명하고 지난 8차 세미나의 안내문까지 사진으로 게재함으로써 로잔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전세계 교회지도자는 물론 각 신학교 또는 선교단체에 김치가 새롭게 소개되는 기회가 됐다.

우리교회의 김치(한국교회갱신연구원)는 '96년 3월 로잔운동의 중요사역인 세계복음화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로잔의 공인기관이 됐다.

지금까지 김치는 8차에 걸쳐 52개국의 교계지도자들을 초청 훈련하였으며, 국내적으로는 목회자신학세미나를 통해 연인원 7580명의 교역자를 재훈련시킴으로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선교사역을 담당해 왔다.

오른손의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주님의 나라와 몸 되신 교회를 위해 자신은 감추고 은밀하게 헌신하고 있는 이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

○... 얼마 전 목회자세미나와 김치세미나에서 봉사한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헌금으로 바쳐 그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교회를 대신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시해 주신 두 분 장로님! 이름은 감추셨으나 하나님께서 아실 터이니 "하나님! 저들을 기억해 주소서!"

○... 우리 교회가 최근 속옷을 갈아입듯 산뜻해져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 1층부터 옥탑층까지 페인트칠을 해주시고 방마다 새 문패를 달아주신 두 분 집사님!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셨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 여름성경학교·수련회, 전도단 파송 등으로 매일 교회가 왁자지껄. 수고하시는 여러 선생님, 학생 여러분 큰 열매 거두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각자에게는 깊은 은혜의 체험이 되시길!

등정

- * 하영수·박정순 집사 연락처 변경 ☎ 539-3733
- * 김만용·정숙자 집사(4교구, 서초다락방)는 12일(토) 인천에 "모아치과"를 개업하고 감사예배
- * 박성현·김은숙 집사(3교구 일원다락방)는 16일(수) "동우 월드 에어·앤·씨"를 창업동으로 이전하고 감사예배
- * 김대용·유희정 성도(5교구, 신림봉천 다락방) 득녀
- * 봉사자를 위한 점심식사는 나종영·이은희 집사 가정에서 제공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주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극동방송(HLAD FM 93.3MHz)	『돌부른 초장』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각 부서 여름행사가 은혜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2.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을 위해
3.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